

시정일보

☐ 인쇄하기

☒ 창닫기

홈 > 뉴스 > 사회문화 > 건설공기업 | 마포구

마포공단, 복지사각지대 맞춤형 서비스 펼쳐

재능기부 기술봉사로 사회적가치 향상

2017년 11월 13일 (월) 10:10:41

주현태 #1*... #* '2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재능기부 기술봉사를 펼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정일보 주현태 기자]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은 최근 사회위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 구민들에게 맞춤형 재능기부 기술봉사를 실시했다.

이는 공단직원들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실시했다.

공단의 재능기부 기술봉사는 성산사회복지관(관장 심정원)과 지낸 해(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복지사업의 발전과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 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주변 SH성산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성산사회복지관에서 신청을 받고 공단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세대를 점검해 필요자재 구매 후 주말에 봉사를 실시한다.

이번 기술봉사 내용은 실내 안전보행 손잡이 설치, 현관문 닫힘 불량, 전등 LED교체, 세면대 트랩설치 등 10세대 25가지로 노약자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시설개선 및 보수사항을 처리해 줬다.

공단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구민에게 맞춤형 기술봉사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높여 가겠다는 방침이다.

© 한국시정일보(<http://www.sijung.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 창닫기